

성공적인 기업승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업인들이 기업의 기업승계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이 바로 조세부담이다. 조세부담에서 벗어나 원만하게 기업승계를 하고 싶다면 기업상속공제 요건에 주목해 보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다.



이향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hangyounglee@hanafn.com

▶ **학력·자격증**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CFP, 외환전문역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중앙일보 자산리모델링 전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기타 활동**
국세청 14년 근무, 외환은행 세무팀장 7년 근무
대한생명 세무전문위원 1년 근무
국세청 조사국 직원 대상 강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과 상속세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을 접하게 된다. 일반적인 자산가들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어 온 1대 기업가들은 대체로 제대로 기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은퇴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가가 갑자기 유고하여 어렵게 일군 기업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후계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게 될 경우, 엄청난 조세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업상속공제란?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기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율이 최고 50% 세율인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부담액을 최대 250억원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지만, 공제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병원장(의사) A씨는 개인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직원 약 150여 명, 연간매출액 160억원의 중견병원으로 성장시켰다. 의사인 A씨의 딸이 이 병원을 상속받는다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흔히 병원은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다. 기업상속공제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주점업, 학교, 학원, 운전학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게임장, 무도장, 음식점업, 주차장업, 법무·회계·세무서비스업 등이 있다.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A씨의 딸이 아버지 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만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위가 의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상속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딸은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은?

중소기업 CEO B씨는 20년 이상 제조업체를 운영해왔다. 두 명의 아들 중 장남이 현재 B씨 밑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B씨는 장남을 후계자로 삼으면서 차남에게도 회사지분을 일정 부분 상속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기업상속공제의 여러 요건 중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규정이 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단독상속에 대한 규정이다. 즉,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한 개의 기업을 공동상속해도 대표이사 승계지분은 기업상속공제 가능

이 규정은 자녀간 균등상속의 원칙에 어긋나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 세법개정에 포함됐다. 이제는 상속인들이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B씨의 경우 아들 두 명에게 회사지분을 상속하여도 후계자인 장남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2.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도 기업상속공제 가능

2개 이상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의 경우 2개의 회사를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아야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던 법률도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하나는 큰 아들, 다른 하나는 작은 아들에게 기업별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추었다면 두 번째 검토할 것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등의 가치로 평가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으로 평가된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거의 없어 대부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는데, 보충적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게 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부실채권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대손처리하고 건물 등의 유형자산은 빨리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매출귀속시기를 연기하거나 특별상여금 등을 빨리 확정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해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상속공제 후 주의할 점은?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기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기업상속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상속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의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상속개시 후 10년간 사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7년 내에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세금 100%를 토해내야 한다. 7년 이상부터 10년까지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일정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선 상속을 받은 뒤 기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하면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업종을 바꾸어도 안 된다. 기업주들이 가장 곤란해 하는 부분은 고용유지 의무인데,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매년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만약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준고용인원이 100명인데 기업상속을 받은 지 5년 후에 79명으로 감소했다면 사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기업상속공제는 장기전략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상속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공제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세법을 바로 바로 확인하여 기업에 맞는 다양한 승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ummary

- ① 기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② 하나의 기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승계지분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③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로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 ④ 기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상속공제제도 요약	
구분	구체적 요건
기업상속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금액 : 기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이상 주식보유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봄)이 상속개시 전 기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기업상속공제 가능 -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 승계지분 기업상속공제 가능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 후 10년간 기업을 영위할 것 대표이사에 종사, 주된 업종 유지,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기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 & 10년 평균 100% 이상을 유지